

# 민주 시·도당위원장 물밑 경쟁 치열...경선으로 가나

광주, 이병훈 의원 표명...합의추대 등 놓고 의원들간 신경전 전남, 신정훈·김승남·주철현 각축...지방선거 맞물려 가열

올 8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만큼이나 차기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도당의 안정적 운영을 명분 삼아 선수(選數) 높은 의원들이 합의 추대 형식을 통해 전·후반기로 나누어 맡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경선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반기 위원장 임기인 2022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칠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시장·지사 후보들의 유불리까지 관련된 만큼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공천이 시·도당에서 이뤄지는 만큼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당=현재까지의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합의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지만, 일부 의원들 간 신경전이 상당하다.

이병훈(동남) 의원이 시당위원장 출마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서구갑) 의원을 제외하고 7명 모두가 초선이다. 송 의원은 중앙당 대변인과 상임위 간사를 맡으면서 시당위원장을 더 이상 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제외하면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이병훈 의원이 가장 연장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연스럽게 연장자가 시당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의원 외에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은 없지만, 광주지역 8명 의원 가운데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의 범운동권 출신이 절반이 넘어 이

들이 세력을 합치게 되면 이 의원의 위원장 도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당선인 8명 중 586세대 범운동권으로는 송갑석(서구갑)·윤영덕(동남갑)·조오섭(북구갑)·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의원이 분류되고 있다. 비운동권 출신으로는 이형석(북구을)·이병훈(동남을)·양항자(서구을) 의원 3명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민형배·이용빈·조오섭·윤영덕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이 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세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당=전남의 경우 재선의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주철현(여수갑) 의원 3파전 양상이다. 세 의원 모두 도전 의사를 감추지 않고 적극적이다. 3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재선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지내 자연스럽게 후보자에서 제외됐다.

우선 초선 주철현 의원의 도전이 눈에 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 직후부터 "동부권 초선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으나 재선 국회의원의 2명이 새롭게 당선돼 실제 출마 가능성이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도지사, 도당위원장을 모두 전남 서부권에서 맡아왔다. 모든 게 서부권 위주로 돌아왔다"며 "하물며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도 서부권(영광) 아니냐, 제가 도당위원장이 돼 동·서부를 하나로 모아 지역 정치를 혁신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도당위원장에 출마해 기울어진 동·서부권 정치 지형을 바로잡겠다"고 도전을 공식화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날 31일 광주일보 통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화에서 도당위원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정치는 관례가 우선 아니냐"며 사실상 재선의 김승남 의원 등 당선인들과 논의를 거쳐 합의 추대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승남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혁신하고 당원과 지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며 도당위원장에 뜻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의 주철현 의원의 경우 '동부권이 그동안 소외됐다'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저도 굳이 분류하자면 동부권 의원"이라며 "주 의원의 논리라면 재선의 동부권 의원인 내가 도당위원장 적임자"라고 응수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에 차기 지방선거 구도

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전타전 차기 전남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이개호·서삼석 의원 등이 이번 도당 위원장에 누가 선출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 물밑 움직임을 벌일 경우 도당위원장 선거가 뜨거워져 앞을 예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3명의 입지자가 나선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라며 "합의 추대 방식이 아닌 경선을 통해 정치지도자로 성장하고, 이 과정이 당 혁신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5일 개원 착수

통합당 "협조 없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5일 개원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치독재하면 앞으로 협조없다"며 민주당 단독개원 움직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분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이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5일 분회의가 열린다면 역시 통합당이 없더라도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법 18조는 의장단 선거 때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의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6선)은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다. 그러나 '셀프 선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 최다선 의원(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사퇴를 보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에 달하므로 박 의원이 무리 없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다. 동시에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까지도 부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통합당 몫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부합하도록 법정 시한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고집에서 벗어나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외, 열린민주당 등 5일 개원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사과에 소집요구서를 냈다. 국민의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 전

단독 개원이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연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G7 초청 기꺼이 응할 것...방역·경제 한국의 역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체제에 대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들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며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개

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개국 외에 브라질을 포함해 G12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세계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증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